

POL IN LOVE

Team C

임 혁 김규진 김예진 이현웅

TEAM MEMBERS

폴인러브 (Pol In Love) C조를 소개합니다!



정외 19

임혁

조장



정외 19

김규진

조원



정외 20

김예진

조원



정외 20

이현웅

조원

01

강원택 교수님 인터뷰

인터뷰이 소개: 명사

〈이력〉

- 2010.09~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2010.01~2010.12 한국정당학회 회장
- 2001.03~2010.08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2008.06 미국 듀크대학교 방문교수
- 2005.07 동아시아연구원 시민정치패널 소장

〈학력〉

-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 서울대학교 지리학 학사

정보출처: 네이버





인터뷰 일시

2021.02.23.(화)

14:00-15:00

인터뷰 장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11호 (교수님 연구실)

역할분담

인터뷰: 이현웅

문서: 김규진

장비/사진: 김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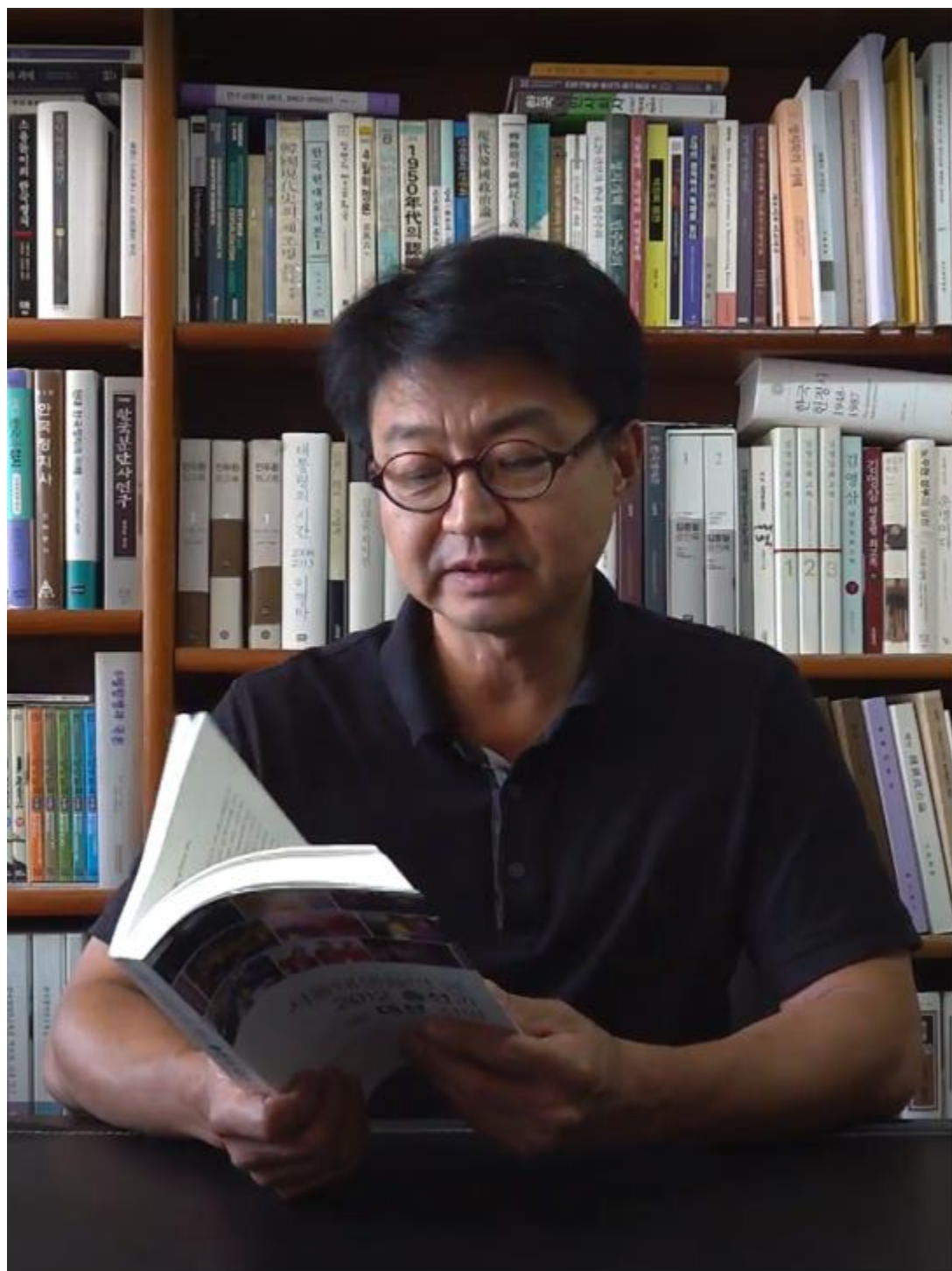
BS/AS: 임혁

교수님은 언제부터 교수라는 직업을 꿈꾸셨나요?
교수가 되고자 하신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학부 때, ‘나 나중에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 리스트에 교수는 없었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교수가 되어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공부하지도 않았고요.

‘몇 살에 무엇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계획대로 삶이 흐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학부생 때가) 제일 고민이 많을 때죠. 불확실성이 가장 크니까요. 그런데 불확실하다는 것은 뭐든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길을 너무 정해놓고 가는 것은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대학에서 제가 공부를 좋아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재밌더라고요. 늦게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에요.”



다가오는 대선에서 어떤 점이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후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대선 후보보다는 공직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 2016년 촛불 이후에 젊은 세대에서 현실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세대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공적인 마인드’와 관련된 것 같아요. 행정고시를 준비하든, 로스쿨을 준비하든,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하든 공공성이 있는 자리를 가고 싶다면, 왜 자신이 그 자리를 가야 하는지 스스로 꼭 자문했으면 해요.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꼭 나여야 할까?’, ‘나는 이런 것을 바꾸고 싶다’ 등의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보고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다른 정치인들, 관료들과 여러분이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예요.”



[정치외교학과] 2021-2 학부 교과활동 계획서

제출일: 2021. 09. 30. (수정일: 2021.10.15.)

소모임명	Pol In Love			
소모임 지원 여부 (해당사항에 V체크)	신규	V	재지원	
소모임 활동 참여자 (학과명, 성명, 학번 기재)	정치외교학과 2019150068 임혁 정치외교학과 2019150089 김규진 정치외교학과 2020150008 김예진 정치외교학과 2020150020 이현웅			
소모임 활동내용	<p>1. 수업명 : 한국정치사 / 정치가론 / 정치심리학</p> <p>2. 연구주제 : "2021 한국정치를 만나다"</p> <p>3. 활동목적 :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학부생으로서 한국정치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본 소모임은 '역사', '인물', '선거' 차원에서 한국정치를 이해하고자, <한국정치사>, <정치가론>, <정치심리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모여 조직했다. 학계, 정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2021년 현재의 한국정치를 알아보고자 한다.</p> <p>4. 활동기간 : 2021년 09월 ~ 2022년 02월 (총 6개월)</p> <p>5. 활동방안 : 학계, 정계, 시민사회 인사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 인터뷰어로 교수님들, 국회의원 및 정당인, 시민단체 등을 선정. - (1단계) 인터뷰이 탐색 및 컨택 - (2단계) 관련 기사 및 집필 저서 등 탐독 - (3단계) 인터뷰 질문 작성 - (4단계) 인터뷰 실시 (촬영장비를 대여해 인터뷰 내용 녹화 및 녹음) - (5단계) 인터뷰 내용 정리 및 인터뷰이에 확인 메일 발송 - (6단계) 인터뷰 보고서 작성</p>			
소모임 활동지원금 사용계획 (수정)	<p>- 도서구입: 250,000원 (인터뷰이 저서 및 교재 구입)</p> <p>- 문구류: 100,000원 (인터뷰 메모용 수첩, 포스트잇, 일정 정리 플래너 등)</p> <p>- 인쇄물: 50,000원 (기사 및 활동지 모음집 인쇄)</p> <p>- 기타: 50,000원 (예비비)</p>			

02

정외과 소모임 활동

주제: "2021 한국정치를 만나다"

〈활동인원〉

Pol In Love C조 - 임혁 김규진 김예진 이현웅

〈활동목적〉

학계, 정관계, 시민사회의 인사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함으로써 2021년의 한국정치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하고자 함.

〈활동정리〉

- 학계: 임혁백 교수, 강원택 교수, 박선경 교수, 현인택 교수, 신법철 박사
- 정관계: 김영배 국회의원, 태영호 국회의원, 강민아 감사위원, 이경철 특별대표
- 시민사회: 송종호 기자, 오준 이사장, 이나영 이사장

정치외교학과 201
정치외교학과 201
정치외교학과 202
정치외교학과 202

한국정치의 각 분야의 인사들을 만나 그들의 삶, 그들의 생각을 들었다. 학계, 정관계, 시
은 어떤 경로로 그 길을 택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에게 하고
무엇일까? 아래에서는 각 인터뷰이의 인터뷰 내용을 차례로 소개한다.

1. 학계: 임혁백 교수, 강원택 교수, 박선경 교수, 현인택 교수, 신범철 박사

(1) 임혁백 교수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경주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학교를 비롯해,
교,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듀크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에서 강의했다. 또한, 대통령자문
동일부 정책평가위원, 국방부 국방정책 자문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정치
세계지역학회 부회장,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소장 및 정책대학원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및 GIST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퇴임 이후에도 끊임없이 연구에 매

안녕하세요, 교수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Pol In Love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로 있고, GIST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들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치학을 박사까지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기는 당시 시대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대학을 다닐 당시 대한민국은 완
니다. 제가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군사 교육 훈련인 교편을 반대하는 데모를 했습니다. 그
데모를 하는데 1학기는 다 보냈고, 2학기 들어가니까 그 71년도에 윤필용 사건이 발생
수도경비사령관이 고대에 진입을 해서, 고대 학생들을 다 잡아 간 사건입니다. 윤필용 사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 일대 위수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학교를 강제로 문을 닫아버렸습니
년도는 그 위수령 때문에 학교에 가고 싶어도 학교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 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0월 유신이 나자마자 전국 계엄령을 선포하고 탕크가 진입을 하
달았습니다. 72년도도 학교를 잘 다니지 못했습니다. 73년에는 민청학련사건이라는 게 있
연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시위가 막 벌어지자 또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
73년, 74년 모두 학교를 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사태로 학업이 중단되고, 이런 사
해서 눈을 뜨게 되면서 정치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정치학의 매력에 궁금합니다.

정치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아트(art: 기술(技術))입니다. 자기 기술을
하는 것처럼 혼자 풀내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아트가 정

(1) 김영배 국회의원

김영배 제21대 성북구(갑) 국회의원은, 1967년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나 브니엘고등학교외
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 석사와 시라큐스대학,
학원 행정학 석사를 지내고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박사를 수료했다. 대통령비서실
및 41대 성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을 역임
21대 성북구(갑)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Pol In Love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학우 여러분 그리고 후배 여러분. 저는 성북 갑구를 지역구로 두,
김영배입니다. 86학번이고요. 정치외교학과 출신입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사랑하는 학우 중 한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계기

저는 성북구청장을 2010년부터 8년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장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크
는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지방자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는지였고요. 특
할 단위에서 실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둘째로는, 그런데 이것이 법-제
하였고, 또 기독교인들의 힘이 너무 세서 그 결과 불평등도 너무 심해지는 것 같다고 느
리 사회의 어둠과 힘든 곳들이 함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라는 입법공간이
정치가 중요하겠단. 그런 생각을 해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국회의원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학생운동을 끝내고 저는 '내가 원하는 진리 내지는 내가 원하는 세상, 이게 내 머릿속
현실하고 너무 멀다. 내가 세상과 삶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반성들을 가장 많이 했던
러면서 여러 경로를 거치며 살아왔는데, 저는 후배들에게 '결국 인생에서 몇 번의 큰 고민
다. 그럴 때가 오니까 그냥 현재 최선을 다해 생각하는 바대로 당당히 맞서라'라고 말씀드
하나는 '질문'을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때 가장 중시하는 게 뭔가. 나
게 뭔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요

대한민국의 평화 및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시민의 시대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렇기에 시민들이 이제 주인이 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이고,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 이후 시대
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직접민주주의나 간접민주주의나'라고 하는 약간 낡은 논쟁으로
후로도 복잡한 논의들이 있는데, 저는 '시민의 시대'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역시 평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
것만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 전체가 정말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것, 평화 그 자체가 오는
작이고, 당분간은 그 자체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평화를 달성하기 위
방향, 방법,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됐으면 좋겠고, 평화 담론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외과 학우 여러분. 정외과 86학번 김영배입니다. 저는 정치외

성착취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평화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시급하게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치적 외교적 상황에 휘둘리며 우왕좌왕하기도 했지요. 우선,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
제의 체계적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 위안소 터들도 아직 존재하고, 증언자들도 고령이지만
아직 살아계십니다. 국내 자료 수집과 보존, 확산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드러난 국내외 자료
들, 가령 연합국 아카이브에 있는 자료들, 연구자들이 밝혀낸 자료들, 고노담화 시 일본정부가 찾아낸 자
료들,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연결, 보관이 필요하겠지요.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의미를 계승하고 차세대 연구·교육자를 육성해야죠. 동시에 식
민지 시기 강제동원 되었다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흔적을 찾고 기록·기념하며, 원폭피해자와 야스쿠니 신
사 유골 반환 등의 문제를 보편적 인권문제로 접근하면서 풀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일제 식민지배와 관련된
과거사 문제를 하나하나 풀면서 위안부 문제 또한 차근차근 해결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내년 당선될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일본 정부의 눈치만 보거나 외교적 관점으로만 이 문제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군 '위안
부' 문제는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이고 전시성폭력의 주요한 사례로 국제사회에 이미 확인되었으니, 앞서
제시했듯 내부적 할 일부터 챙기고 실천하면서 기억과 계승에 힘써야겠지요.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 주도권
을 가지고 아시아 여성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가령 아시아의 여성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구요. 인권과 평화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찾
아서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를 풀어나가고, 평가는 미래 세대에게 맡기면 됩니
다.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으면서 전쟁을 위한 무장을 다시 하겠다는 일본 정부가 과연 아시아 민
주주의와 인권문제를 다룰 자격이 있는지, 세계 평화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후세대가 평가할 것
이고요. 한국 정부 스스로 열심히 하면서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전 세계가 어떻게 평가할지 더 큰 차원에서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북한과도 강제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협력하면 좋구요.

대한민국의 평화 및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냉전체제의 그림자가 너무 짙은 상황에서 우선 남북 간 적대적 긴장관계를
해소해야죠. 평화로운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독립된 국가로서 신뢰를 차분히 쌓아가면 좋
겠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선 전쟁 위협 해소가 우선이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지만 물론 쉽지
않은 문제예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남북 간 적대적 긴장관계 해소
가 전 세계 평화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겠지요. 대한민국, 더 넓게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궁극적인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2021 한국정치의 중심에서 역할하고 있는 학계, 정관계, 시민사회의 인사들은 공동된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정치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그리고 외교적 차원에서 '평화'의 가치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공동적으
로 '시민'과 '북한'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시각각 바뀌는, 그리고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세
부적인 이슈들을 차치하고, 본질적으로 정치학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
해 고민하며 그 고민의 결과를 몸소 실천하는 것이라는 점을 배웠다.



고려대학교 탁상용 캘린더

A5패드 노트



고려대학교 손톱깎이 세트





감사합니다

폴인러브 (Pol In Love) **C조**

임 혁 김규진 김예진 이현웅